

조선조 인쇄 · 출판 주관한 주자소

독서의 풍속사 — 9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주자소는 조선 전기에 인쇄를 주도했던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금속활자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한편 인쇄도 했다. 제조, 별좌, 서리 등 관리가 있었지만 실제 인쇄에 참여한 것은 장인들이었다. 국가의 서적인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들 장인에 대한 대우도 좋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출판사격인 교서관이 있음에도 인쇄소격인 주자소가 인쇄 · 출판을 주도하게 된 것은 왕과 관리가 출판을 기획했기 때문이다.

주자소(鑄字所)는 잊혀진 이름이다. 《경국대전》에는 주자소에 관한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다. 주자소는 조선시대의 인쇄 · 출판을 담당할 중요한 관청이지만, 《경국대전》이 반포되기 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조 6년 주자소가 혁파되기 전까지 조선 전기에 서적은 모두 주자소에서 인쇄됐다. 주자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주자소의 설립 목적은 고려 공양왕 4년에 생긴 서적원의 설립 목적과 동일하다. 그때 “주자(鑄字)와 서적 인쇄를 관장시킨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태조 원년의 서적원과 동일함은 물론인데, 서적원의 이름이 사라지고 난 뒤 실로 주자소에서 서적원이 하던 일을 맡았으니, 주자소가 생기자 사실상 서적원의 구실을 대신 떠맡았고, 서적원은 흐지부지 어느새 없어져버렸던 것이다.

주자소의 주목적은 금속활자 인쇄

주자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원래 금속활자를 주조하는 곳이다. 또 활자를 주자라 불렀기 때문에 활자를 간직한 곳이라는 의미도 된다. 주자소는 활자를 제작,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서 책이 인쇄됐다. 주자소는 주로 활자인쇄를 담당하고 있었고, 목판인쇄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주자소의 설치 연대는 알려진 바와 같이 태종 3년이다.

“새로 주자소를 설치했다. 임금이 본국에 서적이 적어서 유생(儒生)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명하여 주자소를 설치하고 예문관 대제학 이 직(李稷), 총제(摠制) 민무질(閔無疾),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 우대언(右代言) 이 응(李膺)으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내부(內府)의 동철(銅鐵)을 많이 내놓고, 또 대소 신료에게 명하여 자원(自願)해서 동철을 내어 그 용도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년 2월 13일).

이것이 주자소의 설치 내력이지만, 주자소의 조직 구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관청과 그 조직은 《경국대전》에 밝혀져 있지만, 주자소는 《경국대전》의 성립 이전에 없어졌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실록》을 통해 주자소의 인적 구성부터 언급해보자. 위의 태종 3년 자료에 따르면, 주자소는 따로 책임자를 두지 않고 예문관 대제학과 승정원의 승지를 제조로 겸임케 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직체계에서 한 관청의 관직을 다른 관청의 관료로 겸임하게 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예컨대 임금에게 경사(經史)를 강론하는 경연청의 경우 그 관직은 영의정을 위시한 다른 관청의 관료들이 모두 겸임했던 것이다.

제조 아래에는 문신(文臣)이 맡는 별좌(別坐)란 관직이 있었다. 정원은 원래 7명이었으나 뒤에 5명으로 축소됐다. 이들이 주자소 내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이들이 활자의 제작이나 인쇄과정에서 육체적 노동을 맡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한다.

별좌 아래에 양반 관직이 아닌 서리직이 있다. 그런데 이 서리직은 주자소 자체의 인력이 아니라, 교서관의 서리가 겸임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7년 7월 15일조를 보면 이조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건의를 올리고 있다. “교서관의 서원(書員, 곧 書吏)은 주자소에 일하는 임원인데, 교서관 서원이라고 일컫는 것은 불편하니, 주자소 서원이라 고쳐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세종은 이 건의를 수락한다. 이 자료를 보건대, 교서관의 서원은 실제로 주자소의 서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쇄 장인에 대한 대우도 좋아

이상의 제조, 별좌는 인쇄에 필요한 실제 작업을 담당하지 않는다. 서리부터 실제 인쇄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실제 활자의 제작과 인쇄 공정을 담당하는 주류는 장인(匠人)들이다. 다만 주자소 장인들의 구성을 짐작할 만한 자료는 없다. 성종 때 완간된 《경국대전》의 〈경공장(京工匠)〉조를 보면, 교서관 소속의 장인들이 열거돼 있다. 주자소의 장인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아니 교서관 소속의 장인들이 주자소 장인들이 아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뒤에 교서관을 상론하면서 다시 다루기로 하자.

흥미로운 것은 주자소 장인에 승려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세종》 5년 8월 9일에 《통감속편(通鑑續編)》을 인쇄한 주자소의 승려 · 서원(書員) · 재랑(齋郎) 등에게 면포(綿布) 74필, 정포(正布) 52필을 쥐어 포상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승려들이 주자소에 소속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뒤에 《세종》 14년 8월 16일 기사에 도성 안팎의 상행위를 하면서 군역을 모면하려고 하는 중들을 단속하기 위해

한성부에서 '서책을 장정하고 주자소에서 각자(刻字)하는 승려'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죄 충군(充軍)할 것을 청해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중들이 주자소에 소속돼 책을 장정하고, 금속활자를 만드는 등 장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자소 장인의 대우가 어땠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태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적의 인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국가에서 서적 인쇄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주자소 장인에 대한 대우는 다른 기관의 장인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예컨대 이들은 군기감(軍器監)의 장인에 비해 근무 시간이 짧은 반면 급료는 두세배에 이르는 등 대우가 훨씬 좋았던 것이다(《세종실록》 16년 6월 11일).

주자소는 태종 3년에서 세조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실상 인쇄 문화를 주도했다. 이치상으로 봐 교서관은 정3품 아문이고, 목판과 활자를 도맡아 관장하고 있어 서적을 인쇄하는 데 사무가 많다고 했지만(《세종실록》 22년 2월 12일), 그전 교서관이 인쇄의 주체가 돼 바쁘다는 소리는 아니었다. 교서관은 주자소에 인원을 파견하고 주자소에서 쏟아내는 인쇄물에 교정을 보기도 하는 등 주자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나, 인쇄는 어디까지나 주자소의 관할 사항이었다. 1435년 9월 12일 주자소는 경복궁 안으로 옮겨진다. 한 달 뒤 세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자소는 처음 설립할 때부터 대궐 안의 아문(衙文)으로 삼았고, 관원을 임명해 역사를 독려하게 했으며, 모두 승정원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했는데, 관사(官司)가 대궐 밖에 있으므로 왕래하면서 계품(啓稟)하매 일이 지체된 것이 많았다. 이미 대궐 안에 옮기게 하고, 그대로 승지 2인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했으니, 그전 주자소에는 목판만 남겨 두고 교서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할 것이며, 또 2품 이상의 문신 1인과 승지 1인으로 제조를 삼고, 교서·교리와 참외(參外) 2, 3인은 다른 사무를 제폐하고 이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되, 체대(遞代)할 즈음에는 해유(解由)를 상세히 기록해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라”(《세종실록》 17년 10월 19일).

에당초 주자소는 교서관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승정원을 통해 임금의 명령을 받아 책의 인쇄와 출판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승정원-주자소란 명령체계가 있었던 것이고, 교서관은 다만 교정을 맡고 있을 뿐이었다. 원래 주자소는 궐내아문(關內衙門)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궐 밖에 뒀던 것을 세종 17년에 궐 안으로 옮긴 것도 주자소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주자소의 궐내 이전으로 주자소는 두군데로 분리됐다. 가장 중요한 금속활자는 궁중의 주자소로 옮겨졌고, 교서관은 주자소가 보유하고 있었던 목판만을 관리하게

“왜 세종 시대에는 인쇄소에 불과한 주자소가 서적 간행의 주역이 됐던 것인가? 현대의 출판은 원고의 구득에서 장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출판사에서 기획한다. 인쇄소는 다만 그 기획을 현상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왕과 관료들이 출판을 기획했다. 교서관 자체의 기획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책을 직접 인쇄하는 주자소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됐던 것이다. 주자소의 제조를 문신과 승지가 맡게 한 것도 주자소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인사에서도 주자소의 별좌는 이조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승정원에서 관장했으며 뒤에는 주자소의 제조가 관장하도록 바뀌었다.

왕과 관료가 기획하고 주자소가 인쇄 주도해

활자를 직접 주조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주자소는 현대의 인쇄소에 해당한다. 현대 인쇄소의 역할은 기능적이다. 출판 기획은 오로지 출판사에서 이뤄지고, 책은 오로지 출판사의 이름으로 발간된다. 왜 세종 시대에는 인쇄소에 불과한 주자소가 서적 간행의 주역이 됐던 것인가? 현대의 출판은 원고의 구득에서 장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출판사에서 기획한다. 인쇄소는 다만 그 기획을 현상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왕과 관료들이 출판을 기획했다. 교서관 자체의 기획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책을 직접 인쇄하는 주자소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주자소의 역할은 조선시대의 인쇄 출판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자소는 무엇보다 활자를 주조했다. 애초 주자소가 태종 3년 2월 주자소를 설치했을 때의 목적이 활자를 주조하는 것이었던 만큼 주자소는 금속활자의 제작을 독점했다. 주자소는 조선시대 활자 문화를 형성했던 것이고, 이 활자로 막대한 서적을 쏟아내면서 조선전기 인쇄와 출판을 주도했던 것이다. ■

금속활자의 인쇄법

조선시대에 금속활자를 인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으로 만든 인판틀을 준비해 네 번에 돌레를 돌리고 중간에는 판심을 마련하되, 그 사이에 어미(魚尾)와 흑구(黑口) 등과 같이 접지와 제책의 기준이 되는 장식을 넣었으며, 각 줄마다 칸막이를 하는 데 필요한 계선을 준비했다. 둘째, 인판틀이 준비되면 원고를 차례로 부르고, 여기에 해당되는 활자를 찾아 원고 위에 올려놓은 다음 골라 놓은 활자가 한 장 분량이 되면 판에 올렸다. 셋째, 활자 배열이 끝나면 글자 사이의 공간을 죽목이나 파지로 메워 움직이지 않게 하고 편편하게 고르고 나서 먹물로 활자면에 먹물을 골고루 칠한 다음에 종이를 놓고 말춤이나 형겅뭉치 등으로 골고루 문지르거나 눌러서 인쇄했다. 넷째, 초판이 나오면 오자와 탈자를 비롯해 빼놓여진 것, 희미한 것, 너무 진한 것 등을 바로잡고 교정자와 균자장이 서명을 했다(박충일, 《한국의 인쇄문화》에서).